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與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宋景太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5-9551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 967-4984
☎ 967-8133 사무실

1991년도 第2次理事會開催

▲協會는 91.4~94.3월까지 向後 3년간 任期를 맡게될 任員團에 對한 위촉패를 各 理事에게 수여하고 會勢伸張을 爲한 결속과 분발을 다짐하였다(91.5.23일 우이동 미립장에서).

…91年 本會 사업계획외의 주요운용방침 결정…

會費納付제도 強化와 地域別 生産實績 파악에 三位一體로 注力

이날 理事會는 今年들어 두번째 召集하는 金體任員會로서 理事26명중 22명, 監事2명등 84.6%의 前例없는 참석율을 보이면서 성황을 이루었고 신·구任員들의 상견례와 向後 3年間 協會운영의 중책을 부여하는 위촉패가 各任員에게 수여된 후 짜여진 議事進行순서에 따라 진지한 토의에 들어갔다.

▲의사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1)91년 4월1일부터 94년3월31일까지 3년간 본회 이사로 위촉된 전원에게 이사 위촉패가 수여되면서 신·구 임원간의 인사 소개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주무관서에 제출한 정관 개정안이 허가 될 것으로 전제하여 부회장 4인에 대한 직무분담의 가칭 소개가 있었고 증가될 이사 2명중 우선 보완된 함영완(평창군 소장)이사가 소개되었다.

2)생약 생산실적 파악에 3위 일체로서 주력 실시: 지난 5월2일 소운용위원회에서 향후 생약수입쿼타 조정에 필수 요건인 생산량의 정확한 파악을 금년중의 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결 방침에 따라 본부 인원은 물론 지부장, 각급 분사무소장이 긴밀한 협조유지와 단합으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 금년내는 기필코 파악 완료 되도록 주력 지원하기로 결정함. 따라서 6월중으로 그 실시 계획을 전 산하에 시달하기로 하였다.

3)행정 및 생산지도 실무위원회 구성: 원안(별첨 참조)에 제시한 계획(안)을 별의이 없이 만장일치 의결하였다(6월중으로 산하 전 분사무소에 시달 계획).

4)회비 납부 이행 철저: 현행 협회 방침은 6개월 이상 체납시는 경고 조치하고 9개월 이상 체납시는 자동 해임토록 되어있으나 각급 회원의 인식 수준이 극히 해이된 삼태라고 판단하여 하반기(7월)부터는 4개월 이상 체납시는 경고 조치하고 6개월 이상 체납시는 자동 해임조치 한다는 강화톤이 지배적으로 합의되어 6월중 본방침을 하달하기로 의결하였다.

5)협회 사무실 월경비 부족분에 대한 보충 대책: 부족원인에 대한 지출 명세표를 별도 검토하고 별의이 없이 90년11월부터 91년4월간에 발생한 결손분 1천1백87만7천7백48원을 자체 처리하도록 의결하였다(임원들의 찬조등으로 수시 처리).

6)장기회비 체납자 해임조치:

1차 해임조치: 7명

1차 경고조치: 11명에 대하여 전원 합의 의결하였다. 따라서 6월1일부 각각 해임 및 경고 조치하였음.

※경고 조치자에 대하여는 6월20일까지 반응을 검토한후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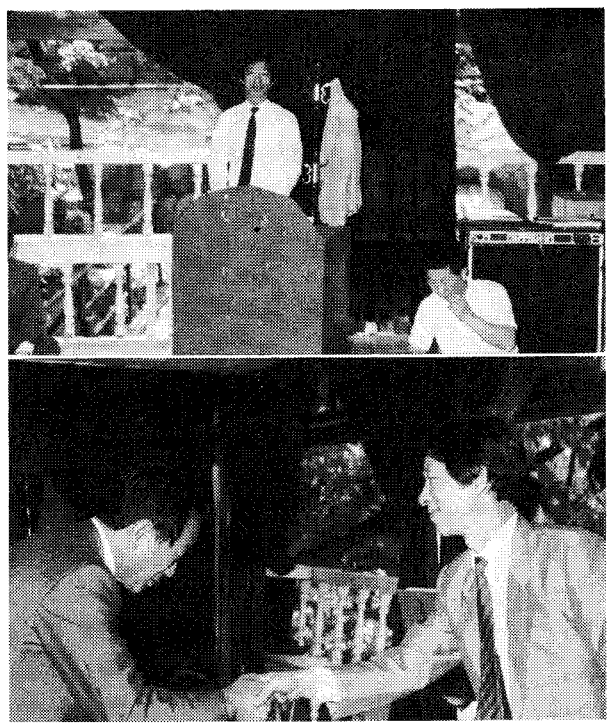
7)본회 직제규정 일부 개정:

직제규정 제2조를 수석부회장하에 운영하도록 개정의결하였다(주무부처에 건의한 정관 개정안 일부가 허가될 것으로 전제함). (91년 5월29일부 정관 개정안 허가됨)

8)생약 안정기금 운용 현황 보고:

별첨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9)추가의결사항: 이종용 부회장 김길동의로 자체 생약재배 및 연구 소분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므로서 시대적 변천에 부응해 나가야 한다는 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우선 황조연부회장 주관으로 하여금 기초안을 조속 마련토록하여 축자적으로 발전 시키도록 하자는 결론을 얻어 의결한후 우이동 자연환경을 찬미하면서 산회하였다.



◇5.23 '91제2차 이사회(위촉패 수여관경)

連載 韓方소묘 〈續〉 >24<

눈썹(眉)에 의한 진단

1. 눈썹에는 방광경과 담경이 흐른다.

눈썹은 기혈의 흐름을 가장 민감하게 나타내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여성미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눈썹이 반달같이 가늘게 휘어져 있으면 미의 첫째 요건이 됨은 물론 관상학에서는 장수를 누릴 상이라고 말함은 다분히 의학적인 반면 미인박명(美人薄命)이라는 말은 지극히 운명적인 표현이면서 비과학적이다.

눈썹에 기혈의 흐름이 민감하게 나타난다면 눈썹의 건강미는 바로 육체의 건강 척도와 통하기 때문이 아닐까?

눈썹의 내측은 순환경락인 방광경이 통하고 있으며 바깥쪽으로는 담경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혈의 흐름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눈썹은 곱고 윤택하면서 건강미가 넘쳐 흐르고 이런 사람은 방광경의 기혈이 건강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눈썹이 나쁘면 이 반대현상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눈썹이 거칠고 윤기가 없으며 눈썹의 빛깔이 희미할 때 피부자체의 건강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증거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한방적 처방으로는 방광이나 간장, 담낭, 폐장 등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코를 통한 진단

1. 코가 붉어지면 간장과 비장을 점검하라

동양인의 골상이 서양인에게 크게 뛰떨어 지는 것은 사실이다.

정말 납작코가 대부분인 동양인은 오똑 솟은 서양인의 코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우뚝 솟은 코와 큼직한 콧방울은 남성의 정력의 상징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남성 자체의 대소가 이에 비례한다는 속설로 규방의 어떤 비어까지 낳게하고 있다.

그리하여 옛부터 명당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져 내려오듯이 신체의 조건을 점검하는 중요한 위치로 손꼽히며 이 코끝은 바로 비료(鼻療)라는 급소가 위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코는 어떠한 건강의 예증을 표현해 주고 있을까?

첫째, 코가 검푸른 빛을 띤다면 몸의 어디엔가에 분명히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며 코가 아프기도 한다.

韓國生藥協會 任員團

社團法人

會長(이사) 송경태
首席副會長(이사) 이종용
副會長(이사) 임연학
〃(이사) 황인구
〃(이사) 황조연
理事 박만종
〃 배명철
〃 남정용
〃 이옥용
〃 이용황
〃 이종철
〃 문대규
〃 민종권
〃 박재문
〃 신영달
〃 서종환
〃 김창한
〃 김동균
〃 박길부
〃 박재운
〃 유진걸
〃 정형모
〃 김종근
〃 이문섭
〃 강삼석
〃 함영완
〃 이승훈
〃 류복규
監事 박영임
〃

(祝) 發展

1991년 6월 20일